

고딕 후기 복식의 극단적 현상 및 특성 연구

성 광 속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Phenomena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treme in the late Gothic costume

Kwang-Sook Sung

Prof.,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ng University
(2018. 7. 22 접수; 2018. 9. 1 수정; 2018. 9. 20 채택)

Abstract

In this study,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Gothic style was examined through the representative art of the period, such as paintings, architecture and tapestries. In particular zones of the body were examined by applying Harold Koda's methods of discussing extreme beauty to study the phenomena and characteristics of extremes in late Gothic costumes. This arrived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concerning the phenomena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treme appearing in the late Gothic costumes. First, a mechanism of body transformation to reach the ideal and desired form of a human. Second, the complicated and various extremeness of the whole human body. Third, the reflection of 'elaborate and secular excess, decorative taste of international Gothic style. Fourth, a early advanced case of the Trickle-down fashion and international sensation. Fifth, the aesthetic insight into 'ugliness', ever pursued in 'extreme beauty'. The researcher expects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to renew the significance of, and to restore the status of the late Gothic costumes, in terms of costume history, that has been considered as an age of the bizarre tastes.

Key Words: the late Gothic(고딕 후기), international Gothic style(국제 고딕 양식), phenomena of the extreme(극단적 현상), extreme beauty(극단적 미)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고딕 후기는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로 흔히 이 시기를 고딕에서 르네상스로 변화하는 예술사

의 전환기로 본다.

Payne(1988)은 “15세기는 복식사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겼으면서도 가장 신비한 시대 중의 하나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플랑드르 등에서 갑자기 많은 예술가들이 배출된 듯하다. 태피스트리, 캔버스, 프레스코 화법으로 그린 벽화, 회화에서 많은 유럽 국가에 퍼져있던 창조에 대한 상당

† Corresponding author ; Kwang-Sook Sung
E-mail : kssungtit@naver.com

한 층동에서 기인한, 이국풍을 한 복식의 기이함들이 나타나있다.”라고 논평하였다(p.231). Black(1977)은 “사람들은 이전 세기 말에 입었던 옷들을 상식을 초월하여 기괴하게 변형시켜 입었다”(p.163)라고 하였고, 유송옥, 이은영(2014)은 “이 시기의 도시의 발달은 새로운 부르주아 및 시민계층을 대두시켰고,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들은 복식을 매우 다양하게 하였으며, 복식의 극단적인 예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했다(p.102).

연구자는 이와같이 상식을 초월하는 기괴함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극단적인 예가복식 역사상 처음으로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등장하며,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당시 유럽 사회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유행을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중세 혹은 고딕 시기의 복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십자군 전쟁이나 기사문화, 고딕 양식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정현숙, 1986; 조현진 외 2004; 백재은, 2003), 중세 생활 미술품들에 표현된 복식에 대한 연구(이순홍, 1997), 내재된 성이론적 사고에 대한 연구(남윤숙, 2001), 중세 복식을 응용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연구(박소연, 2016) 등이 있다. 그리고 고딕 시기와 다른 시기의 복식을 비교한 연구로는 모던.고딕 시대 복식과 포스트모던. 르네상스 시대 복식의 유사성 비교, 중세와 근세 복식의 구조적 분석과 예술적 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난 서양복식의 미적 특성과 현대 패션의 표현(박수현, 1999; 윤점순, 1988; 전여선 2013) 등이 있다. 아울러 본고의 주제가 되는 고딕 후기 복식에 대한 연구는 중세 말기 회화를 통해 본 연구(김혜연, 1989)가 조사되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세 후기, 즉 고딕 후기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복식의 극단적인 현상에 대한 조망은 선행 연구와 더불어 중세, 고딕 시기 복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대의 이집트, 그리스, 로마, 비잔틴을 비롯해 인근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등 서양복식 역사에서 고딕 후기 이전 복식에서 극단적인 예가 관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더구나 고딕 후기처럼 집중적으로 다종다양하게 관찰되는 경우는 전무하

다. 극단적인 현상들은 현대 패션에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끊임없이 발현되어 오고 있으며, 더욱이 패션 트렌드로 맥시멀리즘이 자주 거론되는 현시점에서 고딕 후기 복식은 현대 패션에의 창조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역사적 증거와 자료들의 원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국제적 범위로, 다양하게 형성된 고딕 후기 복식의 극단적 현상에 대한 탐구는 인간의 복식 표현의 근원 및 기제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복식과 인간의 관계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고딕 후기 복식의 극단적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이론적인 배경으로 고딕 후기 예술과 극단의 개념 및 극단의 미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시대적 배경은 고딕 후기 예술의 배경에 대한 내용과 중복됨으로 별도로 논하지 않고 내용 안에 삽입하였다. 고딕 후기의 예술을 ‘국제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데, 고딕 양식과 연결선상에 있기는 하나 명백히 다른 새로운 특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복식사 문헌에는 고딕 후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고딕 예술 양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이므로 연구자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시기의 예술인 국제 고딕 양식에 대해 그 실체를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회화, 건축, 태피스트리 등 국제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예술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성을 유추하여 고딕 후기 복식의 극단적 현상의 분석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고딕 후기 복식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출간된 Harold Koda(2001)의 저서『*Extreme beauty -Body transformed-*』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는 극단적인 현상들을 논의하기 위해 신체 부위별로 목과 어깨, 가슴, 허리, 엉덩이, 발 등 다섯 개 부위로 나누고, 각 신체 부위별로 서양의 역사 복식에서부터 현대 패션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면서, 여기에 추구된 미를 ‘익스트림 뷰티’로 명명하였다. 본고는 그가 논의한 익스트림 뷰티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신체를 부위별로 나누되, 동시대 복식에

나타나는 특징을 고려하여 편의상 머리와 얼굴/몸통: 목, 어깨, 팔, 가슴. 허리. 배/ 엉덩이/ 다리/발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복식의 극단적인 예를 고찰하였다.

이상으로 고찰된 내용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고딕 후기 복식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현상 및 그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논의하였다. 고딕 후기는 14세기 말부터 15세기로서, 시기에 국한된 연구임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고딕 후기로 확인되는 해당 복식의 사례만을 수집하여 고찰하였으며, 사진의 예도 혼란이 없도록 시기를 밝혀 적합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 고딕 양식이 프랑스 궁정으로 부터 파급되었고, 당시의 복식 역시 프랑스가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므로 복식의 명칭은 영어식 표기보다는 가능한 한 프랑스식 표기를 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과 고찰은 관련 서적과 논문, 인터넷 사진 등의 문헌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II. 이론적 배경

1. 국제 고딕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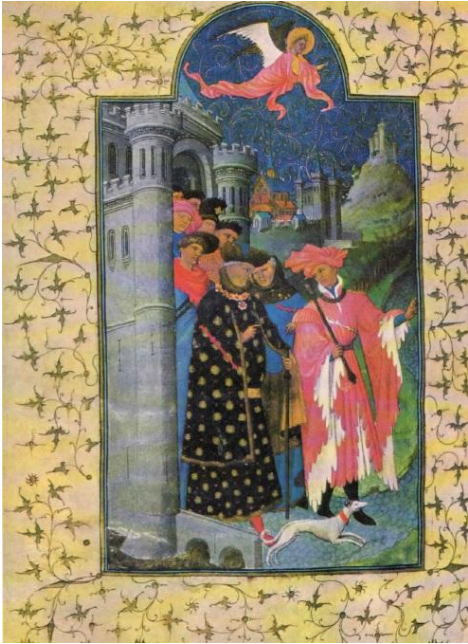
국제 고딕 양식 시기는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초(두산백과), 1400년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반세기(미술대사전, 세계미술용어사전), 14세기 전반 전파되기 시작해 15세기에 걸쳐(위키피디아) 등 문헌마다 약간의 시기 차이는 있으나, 고딕 후기 혹은 르네상스 초기 시대에 해당되는 예술사의 전환기이다.

14세기 말엽 진일보한 반동이 파리와 부르군디(Bourgondië)의 프랑스 궁정에서 나타났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열정, 그리고 사물, 의복, 오락에 담긴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애정이 갑자기 세밀화와 삽화 속에 반영되었다. 국제 고딕이라 불린 이 새로운 양식은 흑사병이 통과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럽을 휩쓸었는데, 그것은 귀족층 특권층 사람들의 세계로서 안락하고 세련된 생활을 음미하고 추구하려는 이들의 모습이 서양 회화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흑사병에 대한 반동의 궁극적 결과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자애로운 신에 대한 믿음의 부활이었다(Retz,

1996). 15세기 초기는 부르주아 계급이 새롭게 부상한 시기로 기록되며, 이미 세력이 약화된 귀족들은 예술로 표현되던 자신들만의 허영에 대한 추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부르주아 계급은 그 예술을 보고 자신들의 모델이 되던 귀족 계급에 열광하였다. 국제 고딕 미술 양식이 유럽 전역에 확산된 요소는 서유럽 전체에 해당되는 사회구조의 유사성, 문화의 동질성, 활발한 상업 통상, 그리고 확실한 국가 간 경계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전역으로 퍼진 공통 양식이 등장하여 다양한 자국 문화들 사이에 서로 다른 문화가 침투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발견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중심지는 부르그뉴(Bourgogne) 궁정과 아비뇽의 교황청이었는데(Legrand, 2006). 이탈리아 미술과 파리화파의 영향을 받은 아비뇽의 국제 고딕 양식은 유럽으로 널리 퍼져나갔으며(Park, 2007), 회화를 중심으로 태피스트리, 모자이크, 칠보세공, 자수, 스테인드글라스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예술 양식이다(두산백과).

1) 국제 고딕 양식의 회화

국제 고딕 양식은 프랑스, 체히(Cechy), 버건디(Burgundy)에서 일어난 고딕 미술 용어이다. 이 양식은 14세기 전반 시모네 마르티니(Simone Martini)가 초빙되어 전파하게 된 시에나파(Siena)와 북방의 고딕 기법이 교류하여 고딕 후기의 정교한 화려성이나 사실성과 시에나파의 정서표현과 설화성이 혼합되었다(위키피디아). 국제 고딕 양식의 주된 특징은 양식화된 유연한 곡선형식으로, 인위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에 세속적인 상류사회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또한 동식물 묘사에 치밀한 관찰력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우아한 고딕 후기의 궁정 취미의 장식적 화풍으로 통일되었다(세계미술용어사전). 랭부르 형제(Frères Limbourg)(그림 1-2)와 브시코(Boucicaut)의 화가 등 프랑코 플라멩(Franco Flameng) 화가, 피사넬로(Pisanello), 젠티레 다 파바리아노(Gentile da Fabriano), 조반니 디 파오로(Giovanni di Paolo) 등의 이탈리아 화가를 비롯해 플랑드르, 에스파냐, 독일, 프라하 등의 일부 화가들의 작품들은 모두 지역적인 개성과 함께 선적인 표현,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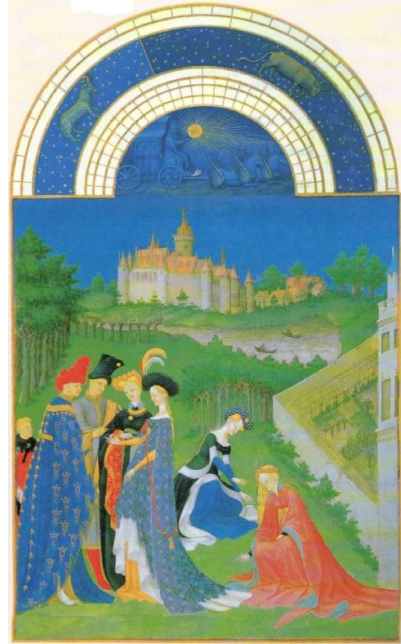
〈그림 1〉 랭부르 형제, 베리공의 작은 기도서,
프랑스국립도서관, 1372-1402년
출처:고딕 회화(p.133) 박영신,2007, 서울:재원

선적이고 리드믹한 조형, 평면적인 구성 등 공통적인 양식이 특색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미술이 고딕 후기 궁정의 매우 우아한 장식 취미 가운데 꽃을 피웠던 것이다(두산백과). 특히 필사본 삽화가로 유명한 랭부르(Limbourg) 형제의 베리공(Jean duc de Berry)의 호화로운 기도서(그림 2)는 당시의 복식 특징을 정교하게 묘사하여 복식사 관련 문헌에 자주 인용되는데 필사본 삽화가들은 삼차원적 공간의 환영을 표현하고, 양식화된 흐르는 듯한 윤곽을 강조하는데 더욱 능숙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흐르는 듯한 윤곽은 대단히 장식적이며 관능적이기까지 하다(Shaver, 1996).

2) 국제 고딕 양식의 건축: flamboyant style

프랑스 15세기 고딕 건축 양식의 발전단계 제3기(또는 후기)에, 고딕 건축의 개구부(開口部)의 골조가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모양으로 된 플랑부아양(flamboyant style) 건축 양식이 나타난다(그림 3).

기본구조는 단순하나 건축 장식이 복잡하여,



〈그림 2〉 랭부르 형제, 베리공의 호화로운 기도서,
콩데 박물관, 1462.년
출처:고딕 회화(p.203) 박영신,2007, 서울:재원

만곡(彎曲)된 상승감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염식(火焰式)이라고도 하는데, 1803년에 고고학자 오귀스트 르 프레보(Auguste le Prévost)가 이름지었다. 건축 양식은 기본구조가 '단순화'하고, 대부분 2층 구성으로 된 대신에 건축장식이 '복잡화'한, 만곡(彎曲)된 상승감을 형성한다.

영국의 고딕 후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수직선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원래 이 원형은 아일랜드의 앵글로색슨의 장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물고기 무늬를 연상케 하는 곡선을 가지기도 하고, 원형 가운데 3파형(三巴形)을 넣는 경우도 많다. 이것이 프랑스에서 불꽃 모양으로 길게 뻗어, 건물 디자인 전반에 사용되어 양식화된 것이다(두산백과). 고딕 미술의 마지막 전성기이기도 한 이 양식은 비록 플랑부아양 양식의 과도함, 불안, 광적인 열기가 예전부터 비판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 위대함이나 감동이 부족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이 양식은 평면도에서나 상승감의 효과적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으나 장식 차원에서 탐색될 때는 아주 혁신적이며, 꾸미는 기법이 매우 다양하고 팔호형 아치, 반궁륭형 아치, 오목한 부조,



〈그림 3〉 생 마클루 교회, 1432-152년.

출처:(2018.01.15.)<https://blog.naver.com/csok6240/40202174343>



〈그림 4〉태피스트리, 사로잡힌 유니콘, 1500년

출처:고딕 회화 (p.122) Shaver.,2007, 서울:재원

꽃봉오리나 잎새 모양을 돌출새김 한 크로켓(crocket), 잎이 오글오글한 양배추형, 중앙의 커다란 꽃무늬 조각, 뾰족하거나 가는 쇠시리 장식, 돌출된 높은 주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의 기법들은 15세기 동안 더욱 확산되고 때로는 전대미문의 기교로써, 정면, 포치(porch), 창문들을 진정 화려한 볼거리로 변화시켰다(Durande, 2006).

3) 국제 고딕 양식의 태피스트리 : millefleur

태피스트리(tapestry)란 색실을 짜넣어 그림을 표현하는 직물 공예이다(위키피디아). 고딕 후기의 유럽 궁정에서는 태피스트리에 밀플뢰르 스타일이 성행한다(그림 4). 밀플뢰르는 말 그대로 '천개의 꽃'이 풀밭에서 자라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작은 꽃과 식물을 배경으로 스타일을 나타낸다. 중세 후기와 초기 르네상스 시대, 약 1400 ~ 1550년 동안 유럽 태피스트리가 본질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밀플뢰르는 주로 약 1480 ~ 1520년에 사용되었다(위키피디아).. 정은진(2009)은 "15세기 태피스트리는 주제와 표현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며, 동시대 회화들과 마치 씨실과 날

실처럼 그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얽혀 있다. 밀플뢰르는 태피스트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모델로(modello)를 카툰(cartoon)으로 확대하면서 생긴 여백을 야생적인 꽃, 작은 식물, 그리고 때로는 작은 동물이 섞여 있는 수천 개의 꽃으로 덮은 바닥장식이다." "밀플뢰르는 식물에 대한 묘사가 하나하나 식별이 가능한 사실성에도 불구하고 장식적으로 보이는 것은 전 화면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밀플뢰르는 장식성의 추구 뿐 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자연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관심의 반영이기도 하다"(pp.17-18)라고 하면서, 당시 태피스트리의 사실적이며 정교하고 극단적 화려함이 추구된 장식성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상으로 고딕 후기 예술인 국제 고딕 양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 고딕 양식 뿐 만 아니라 각 장르인 회화, 건축, 태피스트리의 특성을 범주화한 선행 연구가 부재하여, 참고한 문헌에서 설명된 표현을 인용하여 정리하고, 이를 비교하여 국제 고딕 양식의 공통적인 특성을 〈표 1〉과 같이 추출하였는 바, 귀족 상류

〈표 1〉 국제 고딕 양식의 예술적 특성

예술 장르	특성	공통적 특성
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아하고 화려한 궁정의 장식 취미 · 인위적, 세속적 · 정교한 화려함. · 치밀한 사실성 · 그림의 양식화된 윤곽 강조 · 삼차원적 공간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정, 귀족의 장식취향 · 극단적 화려함. · 복잡하고 과도한 장식성 · 전대미문의 기교 · 사실적 정교함. · 새로운 전환기적 표현.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꽃 같은 문양 · 간단한 기본구조에 복잡한 장식 · 과도함. 불안. 광기의 표현 · 혁신적인 장식 · 전대미문의 기교에 의한 꾸미는 기법 	
태피스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도의 장식성. · 바탕의 여백 없이 꽃, 식물들을 가득 채우는 극단적 화려함 · 최소 크기가 식별 가능한 정교한 사실성 · 주제와 표현의 새로운 전환기 	

사회의 궁정 취미, 극도의 화려함. 지나치게 과도한 장식성, 극도의 정교함과 복잡함, 독특하고 새로운 양식화된 장식, 지나친 과장, 정교한 사실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예술적 특성은 그 시대의 미개념으로 자리 잡으며, 동시대의 복식 형성에 있어 예술적 배경으로 작용하여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제 고딕 양식은 전무후무하게 극도의 화려함과 과도한 장식성이 추구되었 바, 본고의 주제인 고딕 후기 복식의 극단적인 현상의 탐구에 중요한 근거와 단서를 제공해 준다 할 것이다.

2. '극단'의 의미와 Koda의 신체 변형에 의한 '익스트림 뷰티'

극단(極端)의 사전적 의미는 맨 끝. 길이나 일의 진행이 끝까지 미쳐 더 나아갈 데가 없는 지경.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침이다(국어대사전). 따라서 극단적인 복식은 과장적인 복식으로, 형태와 부피가 지나치게 확대, 축소 또는 신체 고유의 형과는 관계없이 왜곡되는 현상 및 노출, 밀착 등이 과도하게 표출되는 복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복식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인간의 외면적 모습에서 걸모습을 과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이를 특

색으로 하는 방향과 성격이 강조되며 경진을 거듭하다가 극단적인 상태에까지 도달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작용하면 일종의 심리적인 흥분 상태가 고조되고 가속되어 극단적인 진전으로 극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의복을 통한 과시, 즉 우월감의 표시는 자신과 자신의 의복을 과시하려는 경쟁자에 대한 반응을 더욱 의도적으로 유도한다. 이러한 경진의 심리상태에 빠지게 되면 각자가 놓여있는 이상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며 상식적인 제도도 곤란해져 복식의 정상적인 한계를 넘어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성광숙, 2003).

Koda(2001)는 패션에서 극단이 추구되는 것을 인간 욕구의 본질로 보고 이에 대해 “패션은 달성하려는 일시적 이상에 가까이 이르도록 신체를 가져가려는 인간의 충동이며 패션은 그러한 가장 극단적인 열망과 기회를 드러내 보여준다”고 역설하였다(p.13). 또한 극단적인 패션에 추구되는 미감을 ‘익스트림 뷰티’라고 하고, 익스트림 뷰티에 대해 “익스트림 뷰티는 패션의 상호비교적인 특성으로부터 비롯된다. 많은 역사적 예에서 드레스의 각 부분들은 그것이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하기까지 과장이 점점 더 증가되는 발달과정을 드러내게 된다” “익스트림 뷰티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누드 신체라는 규범적 조건으로부터 다양

성이 추구되는데, 이는 화장품, 신체 훼손, 헤어 관리 등 다른 것들보다는 신체 재구성 기제로서의 복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신체를 부위별로 나누고, 각 부위별로 역사 복식에서 현대 패션에 이르기까지의 사례를 들어 고찰하면서, 극단적인 패션이 추구하는 미에 대해 신체 변형(body transformed)적인 ‘익스트림 뷰티’로 명명하였다. 또한 그 내적 의미에 대해 “이는 의식할 여지없이 다양한 의미와 의도를 내포하는데, 신분, 부, 권력, 성, 문화, 의식, 소속 등을 나타낸다.” “익스트림 뷰티는 미적인 이상을 창조하기 위한 전략이며, 유행을 추구하는 미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다.”(p.11)라고 피력하였다.

Ⅲ. 후기 고딕 복식의 극단적 현상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회화, 건축, 태피스트리 등 모든 예술 영역에서 극도의 장식성과 화려함, 지나친 과장 등이 추구된 것처럼 이 시기의 복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식적이며 화려함, 과장 등이 극도에 도달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예술적인 배경과 더불어 사회적 배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이전의 왕과 귀족 중심으로부터 시민 계급이 주도적인 계층이 된 사회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이전의 도덕개념, 미 개념은 사라지고 시민 계급의 허영심은 끝없이 타인에게 무언

가를 과시해 보이려는 충동으로 의상은 강한 변화에 자극을 받았다(Boehn, 2000). 다시말해, 이 시기는 십자군 전쟁과 동방문물의 유입, 귀족 및 기사 계급의 몰락, 상공업의 발전으로 인한 도시의 번성 등의 요인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이 사회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아울러 복식에 있어서 직물공업의 발달로 복식의 형태와 종류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충분한 직물의 사용으로 점차 양감이 풍부한 의상, 필요 이상으로 장식된 의상, 기괴한 유행에 의한 의상들이 나타나 당시 사회의 특수성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정홍숙, 1999). 후기 고딕의 복식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현상에 대해 Koda(2001) extreme beauty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각 신체 부위별로 정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머리와 얼굴

남녀불문하고 전체 복식에서 머리 장식 만큼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것은 없었는데, 남성의 릴리파이프(liripipe)는 모자의 끝부분이 뒤로 길게 늘어져 1420년 경에는 바닥에 닿았다. 또한 원래 얼굴을 감싸기 위해 고안된 샤프롱(chaperon)은 구멍을 머리에 써서 가장자리를 늘어뜨리거나 감싸 올려 (그림 1)의 우측 남성의 두식(頭飾)처럼 거대한 크기로 여러가지 모양을 연출하였고, 이를 변



〈그림 5〉 Liedet,, 1470년

출처:고딕 회화 (p.252) Payne..2007, 서울:재원



〈그림 6〉 익명, 1430년경

출처:고딕 회화 (p.163) Black.,2007, 서울:재원



〈그림 7〉 플로젠타인 스킴, 1460년경

출처:고딕 회화 (p.272) Payne.,2007, 서울:재원

형한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이 나왔다(Black, 1997). 이와함께 크라운 부분이 매우 높은 슈가로프햇(Sugarloaf hat)도 착용되었다(그림 2)(그림 5).

15세기 여성 복식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옷이 아니라 머리 모양인데, 머리 장식은 기이한 형태로 만들어지던 마리 앙트와네트 시대의 것을 능가하는 가장 기괴한 형태였다. 〈그림 6〉의 좌측 여성의 두식을 보면, 거대한 크기로 양의 뿔 모양의 보석장식이 화려한 부르레(bourrelet)를 착용하였다. 이때 머리를 양쪽으로 또아리 모양으로 말아 올려 덮는 기구를 영국에서는 템플러(templer) 〈그림 7〉라고 하는데, 역시 화려한 보석으로 꾸미고 그 위에 접은 린넨, 리본, 베일, 화관 등으로 치장하기도 하였다(고애란, 2008). 또한 〈그림 6〉의 가운데 여성의 두식을 보면, 모자를 뒤로 제껴서 이마가 닿는 부분과 수직을 이루고 사이에 비치는 베일을 접어 넣은 모습이다. 머리카락을 빗어 정수리에서 또아리형으로 말아 올리고 짧고 뭉뚱한 모자를 그 위에 쓴 것인데, 이때 앞머리는 뽑거나 면도를 해서 〈그림 7〉처럼 만든다. 또한 에닝(hennin)은 고깔 모양의 모자인데 최고 길이가 120cm 까지 길어졌으며, 그 높이는 그것을 착용한 여성의 지위에 의해 결정되었다(Mirkin, 1996). 고깔 끝에는 길게 늘어뜨리는 비치는 베일 달거나, 철사세공으로 나비 모양을 제작하여 뻗치도록 늘어뜨리는 커치프(kerchief)

를 하기도 했다. 〈그림 6〉의 오른쪽 여성의 두식은 에닝에서 변형된 끝이 뭉뚱하게 잘린 낮은 고깔이 양쪽으로 달리고 그 위에 흰 베일로 장식한 에스코피온(escorpion)이라는 거대한 스타일이다(고애란, 2008). 이상의 모든 스타일은 〈그림 7〉에서 보듯이 머리카락이 걸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머리 장식으로 완전히 감싸고 이마나 목덜미를 뽑거나 면도를 하였는데 이탈리아인들은 이마가 넓은 것이 미인의 기준이 되어 더 많은 이마와 목덜미를 드러냈고, 눈썹은 초생달 모양으로 뽑는 것이 프랑스와 플랑드르에서 유행하였다(Payne, 1988).

이 현상은 전무후무한 독특하고도 유일한 스타일인데, 수직적 확대라는 고딕적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체의 중심이 되는 얼굴과 바로 연결된 목의 길이를 확대 변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흥미롭다.

2. 몸통: 목, 어깨, 팔, 가슴. 허리. 배

남성은 어깨와 가슴을 부풀려 크게 강조하는 형태가 유행하였는데, 소매가 달린 상의인 푸르푸앵(pourpoint)과 우플랑드(houppelande)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그림 5). 이 의상은 거대 환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심, 쿠션, 패드를 잔뜩 넣은 마이오투레스(mahoitres)로 어깨, 소매, 가슴 부위 등을 부풀려 극단적으로 과장하는 형태가 추

구되었다. 소매는 반달형의 어깨용 패드인 마이오트레스를 넣은 레그 오브 머튼(*leg of mutton*)형(그림 5-6), 백 파이프(*bagpipe*)형(*payne*, 1988), 또는 손목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깔때기형으로 길이가 바닥에 끌릴 정도의 것도 많다. 소매 부리에 털을 대거나 성곽, 톱니, 부채꼴, 꽃잎, 잎사귀 모양으로 잘라낸 것 같은 기이한 모양을 내기도 했다(그림 1-2). 특히 우플랑드는 넓은 소매와 품, 바닥에 끌리는 길이로 많은 분량의 원단이 소요되고 동물의 털과 자수 고급 문양직으로 이루어져 신흥 부르조아 세력이 자신의 부를 표출하려는 과시적 심리가 작용하는 우월감의 표시 수단으로, 경진 심리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허리는 확대와 축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폭이 넓은 시클라스(*cyclas*), 케이프(*cape*) 등에 의해 폭이 넓게 가려지게 하여 허리 부분의 확대 현상이 관찰되지만, 우플랑드를 착용한 모습은(그림 1-2)(그림 5-6)에서 보듯이 허리 부분 혹은 허리 아래 엉덩이에 걸치듯 벨트로 느슨하게 고정시켜 연출하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반면에(그림 5-6)의 젊은 남성은 축소가 많은데, 멋있게 보이려는 젊은 이들이 코르셋을 착용했을 것이라고 하며, 당시의 문헌 자료에 1350년경 허리의 끈을 졸라맬 때 견뎌야 하는 남성들의 고통에 대해 언급한 내용의 편지가 남아있다(Beohn 2000). 남성들이 허리를 잘록하게 보이기 위해 꼬트(*cotte*), 슈미즈(*chemise*) 등의 이너웨어가 옆에서 끈으로 조일 수 있게 고안되었음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우플랑드의 허리선을 딱 맞게 재단하여 가늘게 보임으로 어깨와 가슴을 더욱 넓게 강조하는 효과를 주기도 하여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않으나 젊은 남성이 허리를 가늘게 조이는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리하여 젊은 남성들은 푸르푸앵을 통해 역삼각형 몸매로 남성다운 성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그림 2)의 좌측 남성에서 보듯이, 남녀 모두 칼라나 허리피에 방울 장식을 달거나 톱니 모양, 꽃 모양으로 자른 것들을 아플리케(*appliqué*)하는 대깡(*dagging*)이라는 특이한 장식 취미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의상이 아래쪽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윗부분은 점점 더 작아졌는데, 목선을 깊이 파는 것이 이미 14세기에 나타났고, 15세기

에는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어깨 과장은 전혀 없으나, 목과 어깨, 그리고 가슴 굴곡이 드러나도록 깊이 노출하는 데콜테(*décolletée*)가 로브(*robe*)(그림 6), 코타르디(*Cotehardie*)(Figure 2)에서 나타나며, 앞 목선 보다 뒷 목선을 더 깊게 판 스타일도 관찰된다. 극단적 노출이 추구되지는 않았으나 올린 머리의 뒷목을 면도하여 목을 길게 보이도록 하고(그림 7), 역사 복식 최초로 여성의 목, 어깨, 가슴에 이르는 노출이 시작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팔 부분은 어깨의 과장 없이 손목으로 내려갈수록 남성의 경우처럼, 코타르디, 로브, 우플랑드 등의 소매가 극단적으로 넓어지고 땅에 끌릴 정도로 길며 소매 부리에 다양한 무늬나 형태로 장식을 하기도 했다(그림 2)(그림 6). 허리는 하이웨이스트로 가슴 밑에 벨트나 밴드로 조이는데 이는 허리에 시선이 집중되기보다는 가슴을 강조하는 효과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반대로 배 부분에 확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배 부분에 패드나 쿠션 등의 보형물을 넣거나, 배를 내미는 자세를 취해 볼록하게 보이도록 하였으며, 이는 14세기 중반 패스트로 인한 유럽 사회의 절대적인 인구 감소에 영향을 받아 임신한 여성을 희구하는 정신이 추구된 것이다. 특이한 것은(그림 2)의 앉아 있는 여성이 코타르디 위에 겹쳐 입은 쉬르코 투베르(*surcot-ouvert*)인데, 전무후무한 기이한 형태의 패션으로 소매의 진동선이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파여있어, 이너웨어로 입고 있는 밀착된 코타르디에 의해 허리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신체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신체 변형적인 관점보다는 잘록한 허리와 풍만한 엉덩이 라인을 은밀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전략으로, 당시의 가슴 부분을 깊이 파는 시도와 더불어 허리, 엉덩이 등 여성 신체의 굴곡을 드러나게 하여 여성의 누드 신체를 연상시키는 성적 표출 전략으로 생각된다.

3. 엉덩이

젊은 남성들은 넓은 어깨와 가는 허리를 표현하는 푸르푸앵의 길이를 엉덩이 위까지 짧게 하고, 그 아래에 밀착되는 쇼오스(*chausses*)를 착용하여 엉덩이의 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남성의 상징이 밀착되게 드

〈표 2〉 후기 고딕 복식의 극단적 현상

신체 부위	남자		복식의 종류	여자		복식의 종류
머리	확대	◎	리리파이프, 샤프롱, 슈가로프 헛	확대	◎	부르레, 템플러, 에스코르피온, 에닝 커치프
얼굴				확대	◎	(면도에 의한)
목				확대	◎	(면도에 의한), 로브
가슴	확대	◎	푸루푸앵, 우플랑드	노출	○	로브
어깨	확대	◎	푸루푸앵, 우플랑드	노출	○	로브
팔	확대	◎	우플랑드	확대	◎	코타르디, 우플랑드, 로브
허리	확대	◎	시클라스, 케이프	축소	○	코타르디, 로브
	축소	○	푸루푸앵			
배				확대	◎	코타르디, 우플랑드, 로브
엉덩이	밀착	◎	쇼오스	확대	◎	우플랑드, 로브
다리	밀착	◎	쇼오스	확대	◎	코타르디, 우플랑드, 로브, 쉬르코투베르
발	확대	◎	뿔렌느	확대	◎	뿔렌느

◎ 극단적인 상태로 도달. ○ 극단적인 상태로 경진

러나 역사상 유래 없는 익스트림 뷰티가 추구되어 현대인의 시각에서도 상당히 민망스러운 모습이다(그림 5-6). 여성의 경우는 로브나 우플랑드의 허리 부분을 하이 웨스트 라인에서 벨트를 매거나 타이트하게 조여줌으로 엉덩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부풀려지는데, 과도한 부풀림에 의한 극단적인 스타일이 추구되지는 않았다(그림 2)(그림 6).

4. 다리

남성의 바지인 브레(braies)가 점점 짧아지다가 함께 착용된 쇼오스는 상대적으로 점점 길어져 힙까지 올라가고 브레는 속옷으로 바뀌면서 타이트한 쇼오스가 대신 바지가 되었다. 15세기 초 브레와 다리 부분이 마침내 하나의 옷으로 융합되었으며 이것은 끈으로 푸르푸앵에 고정하였다. 남성은 쇼오스를 입어 엉덩이와 다리, 발에 이르는 신체의 선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선정적인 극단적 미가 추구되었다(그림 5). Beohn(2000)은 1367년 독일 문헌에 “짧은 남자들이 부끄러운 부분도, 엉덩이도 덮지 못할 정도로 짧은 상의를 입었고, 바지는 매우 좁아서 입고 벗을 때 마치 껍질을 벗는 것처럼 특별한 도움이 필요했다”고 기술되었다 하였고 “극단적으로 꼭 끼

는 이 바지는 브라케트 또는 브라예트(braguette, brayette)라고 하는 성기 주머니를 두드러지게 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의 크기로 체면을 나타낼 만큼 더욱 더 뻥뻥스러워졌다.”고 논평하였다(p.136). 더구나 이 시기는 염색술의 발달로 화려한 색채가 유행하였는데, 양쪽 다리를 강렬한 원색의 색상으로 달리하는 파티 컬러(parti color)가 유행되어 남성 다리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미감이 추구된 사례라고 하겠다.

여성의 경우를 보면, 길게 끌리는 스커트 자락이 단연 눈에 띄는데(그림 6), 여성의 길게 끌리는 옷자락, 즉 트레인(train)은 중세의 발명품이다(Beohn, 2000). 우플랑드, 로브, 코타르디(Cotehardie) 등의 스커트 자락 길이가 5m나 바닥에 끌릴 정도로 14, 15세기는 옷자락이 땅에 끌리는 패션의 시대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압도적인 우아함으로 부와 권력, 신분을 드러낼 뿐 만 아니라, 머리 방향의 수직적 확대와 더불어 신체의 상방과 하방이 극단적으로 확장되어 고딕 예술의 수직적 확대라는 미적 이상을 신체에 실현하는 기제로 복식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5. 발

여성보다는 남성 신발에서 길이의 과장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그림 5). 발끝의 극단적인 길이 확대가 폴레느(poulaine)라는 신발을 통해 실현되는데 신발 길이가 15인치(inch) 인 것이 유물로 남아있다. 신발의 뾰족한 앞 끝은 신분의 상징이었고, Mirkin (1996)에 의하면, 명백하게 남근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신을 향한 수직적 확대라는 고딕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여,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를 내포하는 극단적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상으로 복식을 통한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신체 변형 기제로서의 극단적인 현상에 관해 신체 부위별로 복식의 사례를 들어 고찰하였으며, 고찰된 내용은 <표 2>를 통해 정리하였다. 표를 보면, 남성과 여성별, 신체 부위별로 해당 사례의 복종을 제시하고, 신체 부위별로 확대, 축소, 밀착, 노출 등으로 추구된 극단적인 스타일의 양상을 표기하였으며, 아울러 익스트림 뷰티가 추구된 정도를 극단적인 상태까지 도달한 경우(◎)와 극단에 도달하기 이전에 그 방향과 성격이 강조되어 경진 상태인 경우(○)를 가늠하여 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딕 후기 복식의 극단적인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제 고딕 양식의 회화, 건축, 태피스트리 등 대표적인 예술을 통해 그 실재를 파악하고, 같은 시기의 복식을 Koda(2001)의 익스트림 뷰티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신체를 부위별로 나누어 각각에서 보여지는 극단적인 예들을 고찰하였다. 이상으로 고찰된 사항들을 내용분석을 통해 고딕 후기 복식의 극단적인 현상 및 그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 인간의 욕망과 시대적 이상미를 추구하기 위한 신체변형의 기제

전술한 바와 같이 Koda(2001)는 익스트림 뷰티를 설명하면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누드 신체라는 규범적 조건으로부터 다양성이 추구되는데, 이는 신체 재구성에 의한 기제로서의 복식에 의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익스트림 뷰티는 달성하려는 일시적 이상에 가까이 이르도록 신체를 가져가려는 인간의 충동이며, 그러한 가장 극단적인 열망과 기회를 드러내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신분, 부, 권력, 성, 문화, 의식(儀式), 소속 등의 내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Kaiser(1990)는 복식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스타일은 의복을 통해 신체의 외형적인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확장된 자아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내적 의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이 욕망하는 것과 그 시대에 추구하고 있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식은 신체라는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추구하는 이상에 도달하도록 신체를 재구성하는 강력한 기제이다. 즉 극단적인 스타일은 복식심리의 극단적인 전개에 따라 정상적인 복장의 경지를 넘어서 이상 상태에까지 도달하려는 미적 표현인 것이다(Sung, 2004). Payne(1988)은 15세기 상류사회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적인 우월성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오늘날의 학자들을 놀라게 할 만한 기발한 행동을 한 시대였으며, 대단히 화려한 시대라고 칭하고, 이 시대의 여성들이 견뎌내야 했던 육체적인 부자유스러움과 불편함은 오늘날의 여성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다고 논평하여, 15세기의 복식에 의한 신체 변형적인 미의 추구를 시사하였다.

고딕 후기의 경쟁적 모방과 경진 심리에 의해 가속된 극단적인 스타일은 고딕 양식의 수직적 미의식을 실현시키고, 국제 고딕 양식의 정교함과 호화로움과 장식성의 극단을 추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세속적이며, 성적인 이상적 신체를 구현하고, 인구 감소의 절대적 사회결핍을 보상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부루주아가 가진 부와 권력과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하튼 동시대인들은 그들의 이상에 가까이 이르도록 복식을 통해 신체를 가져가려는 열망을 추구하고 있다. 이로서 환상을 실현시키고 복식을 착용한 신체는 이상적으로 변형되었다.

복식의 호화로움을 극단까지 몰고 갔던 동로마 제국에서조차 복식을 통한 신체 변형에 의한 이상적 환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고딕 후기 복식의 극단적 현상은 복식 역사에서 신체 변형에 의한 극단적인 미의 추구를 확인 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그리하여 뒤이어 16세기 르네상스,

17세기 바로크, 18세기 로코코, 19세기 근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체 변형적인 극단적인 스타일이 끊임없이 추구되어, 동시대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제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2. 전 신체 부위의 복잡 다양한 극단화

전 신체 부위별로 복잡 다양한 극단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분석해 보면,

첫째, 머리, 얼굴, 어깨, 가슴, 허리, 배, 팔, 다리, 발 등 각 부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의 고유한 형태와는 관계없이 확대 및 축소, 과도한 밀착 등 왜곡된 다양한 양상들이 관찰된다.

둘째, 다발적 양상의 특징은 우선 확대에 의한 왜곡이 현저하게 많으며, 축소와 노출, 다음으로 밀착 순으로 나타난다.

셋째, 극단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남성의 신체 부위는 뒤이은 16세기에 극단적으로 확대됨으로 이는 부재가 아닌 극단을 향한 잠재적 부위로 해석할 수 있다. 머리, 가슴, 어깨, 팔, 엉덩이, 다리, 발 등 대부분의 신체 부위에서 극단이 추구되며, 극단적인 스타일이 추구되지 않는 곳은 얼굴과 목 부분인데 주지하다시피 뒤이은 16세기 러프(ruff)카라, 17세기 크라바트(cravate)로 부터 현대 넥타이에 이르기까지 남성의 목은 남성의 성적 상징 전락으로 점점 확대되는 길을 걷게 된다. 아울러 16세기 가슴과 배를 확대하는 피스카드벨리(peascod belly), 남성의 성기를 돋보이게 하는 코드피스(codpiece) 등이 등장하기도 하여, 남성 전 신체 부위는 확대되는 역사를 갖게 되는 점도 흥미롭다.

넷째, 여성 복식의 극단적 현상은 강도의 차이를 두고 전 신체 부위에서 나타난다. <표 2>를 통해 제시하였듯이 머리, 팔, 배, 다리, 발 등의 신체 부위에서 확대에 의한 극단에 도달하고, 얼굴과 목은 전무후무하게 기이한 면도에 의한 확대가 시도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가슴, 어깨, 허리, 엉덩이 등에서는 극단에 이르지 않으나 노출이나 밀착에 의해 극단을 향해 경진되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뒤이어 16세기가 되면 이 신체 부위는 가슴은 노출이 더욱 깊어짐으로 인해 스토마커(stomacher)로 대치되며, 허리는 강력한 콜셋을

통해 극단으로 축소되고, 엉덩이는 파팅게일(farthingale)을 통해 극단으로 확대됨으로 인해 극단적 왜곡이 진행되고 있는 경진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국제 고딕 양식 예술의 특성에서 밝힌 바 있는 세속성의 영향으로 인해 남성, 여성 각각의 이상적인 몸매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극단화가 진행되었는데, 남성은 남성의 역삼각형 몸매를 강화하도록 극단적인 상태에 도달하였으며, 여성은 모래시계형의 몸매에 도달하기 위한 경진의 상태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뒤이은 16세기에 모래시계형 몸매의 극단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성적 이상의 추구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욱 허용적인 당시의 관념으로 인해 남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여섯째, 남성과 여성 모두 공통적으로 착용한 신체로부터의 대상 끝을 향해 확장되었다. 하늘을 향해 치솟거나 거대한 형태의 두식(머리), 땅 끝에 끌릴 정도의 소매(팔), 뾰족한 신발(발), 여성의 긴 트레인(다리와 발) 등 각각 대응하는 신체의 끝 부위에 공통적으로 극단적 확대가 나타난다. Horne, Gurrel(1995)이 대상과 신체가 접촉하게 될 때 의식되는 자기 존재는 대상의 끝부분으로까지 확장되며, 그 크기, 힘, 무게, 강도, 운동감을 증대시키고, 물리적 신체 한계 너머로 자기감이 확대된다고 하였듯이, 이러한 현상은 자기확대감, 우월성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1번에서 논의한 인간의 욕망, 이상 추구의 특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제 고딕 예술 양식의 '정교하고, 세속적인, 과잉 장식 취미'의 반영

문헌에 보면, 중세의 대표적인 극단적 스타일인 에냉, 뿔렌드, 리리파이프 등은 고딕 양식에 기인한 수직적 관념으로 뾰족하고 가느다란 형태가 이상적으로 생각되어 나타난 것으로 흔히 설명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다른 복식에 나타나는 극단적 현상은 고딕 예술 감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Payne(1988)은 15세기는 가장 신비한 시대이며, 이탈리아, 프랑스, 플랑드르 등에서 갑자기 많은 예술가들이 배출되었고,

태피스트리, 캔버스, 프레스코 화법으로 그린 벽화, 회화에 많은 유럽 국가에 퍼져있던 창조에 대한 상당한 충동에서 기인한, 이국풍을 한 복식의 기이함들이 나타나있다고 논평하여, 15세기의 기이한 복식에 국제 고딕 양식의 특성이 반영되었음을 시사했다.

회화의 국제 고딕 양식, 건축의 플라부아양 스타일, 태피스트리의 밀플뢰르, 그리고 극단적인 복식과 거기에 추구된 극단적인 미는 그 맥락을 같이하는 고딕 후기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국제 고딕 예술 장르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궁정 귀족의 장식 취향, 극단적인 화려함, 복잡하고 과도한 장식성, 전대미문의 기교, 사실적 정교함, 새로운 전환기적 표현 등으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한 마디로 '정교하고 세속적인 과잉 장식 취미의 반영'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고찰한 바와 같이, 복식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대다수 공유되는데, 예컨대 우플란드의 문양직에 의한 정교하고 화려한 외관과 소매의 기이하고 다양한 형태들, 기괴하고 지나치게 거대한 머리 장식인 부르레, 에스코피온의 정교하고 화려한 볼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나치게 과장, 왜곡된 과잉 장식성,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이상적 몸매를 돋보이기 위해 극단적으로 확대, 축소하여 과장하는 세속성 등, 국제 고딕 양식 예술과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직적, 예각적 감각인 고딕 양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와같은 극단적 현상들에 대한 조형적 이해가 가능해진다 하겠다.

4. 유행의 '하향 전파' 및 국제적 규모 확산의 초기적 실례

신분과 계층이 출생에 의해 결정되는 신분계급 사회는 복식을 통한 신분의 구별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역사복식에서 유행의 하향전파 현상이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다.

Bohn(2000)은 사회변화에 기인하여 시민계급이 주도적 계층이 되었으며 예전의 도덕개념과 미개념도 사라지게 되었으며 전혀 다른 의복 형태들이 등장하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변화도 훨씬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여, 당시가 이전과는 다른 시민계급의 유행주도 및 빠른 변화와 유

행의 시대임을 말해주고 있다.

국제 고딕 예술 양식은 부르주아 계급의 형성과 그들에 의한 귀족계급의 모방에 의해 확산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복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유행은 궁정에서 시작되어 시민 계급의 경쟁적 모방과 과열로 퍼져 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 전파의 고전적 이론으로, 상류 계층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시작된 스타일이 상류 계층과 동일하게 되고자 하는 동조 욕구에 의해 그들의 패션을 모방하면서 유행이 낮은 계층으로 전파되는 이른바 조지 심멜(George Simmel)의 '하향전파 이론(Trickle-down theory)'(정명선 외, 2011)을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여주는 시발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역으로, 시민계급으로의 확산이 없었다면 복식에 전무후무한 극단적인 현상들이 이처럼 기이하게 추구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민계급의 경쟁적 모방과 과열로 퍼져나간 유행이 일부는 다시 상류 귀족층에게 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추측도 가능한데, 이는 결국 '상향 전파(Trickle-up)'가 될 것이다. 여하튼 유행의 계층 간 전파를 볼 수 있는 역사적 초기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국제 고딕 양식의 확산에서 확인했듯이 국제적 규모의 유행 확산의 토양이 마련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본래의 의미에서 패션과 유행은 도시의 산물인데, 이 시기 도시의 발달은 새로운 부르주아 및 시민 계층을 대두시켰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복식을 매우 다양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복식의 극단적인 예를 가능하게 하였다. 복식의 변화는 그 사회 안에서 여유 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여유 소득이 많은 계층은 복식이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사회 심리적으로 만족을 위하여 구매하며, 따라서 이들이 원하는 형태로 복식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신흥 부르주아의 형성이라는 사회적 변화 요인이 복식의 변화 즉 유행 형성의 큰 원인으로 제공된 것이다.

5. '극단적인 미'의 감각인 '추'의 '미'에 대한 통찰

Koda(2001)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패션의 극단적인 현상에서 추구되는 미감을 신체 변형적

인 ‘익스트림 뷰티’로 명명하였으나, 복식사 문헌들을 보면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컨대 상식을 초월하여 기괴하게 변형시킨(Beohn 2000), 상당한 충동에 기인한 복식의 기이함(Payne 1988), 지치지도 않고 기이한 느낌을 주는, 너무 지나친 치장(Beohn 2000), 기괴한 유행에 의한(정홍숙, 1999)등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극단적인, 부조화적인, 기괴한, 괴상한, 기이한, 거대한, 심한, 과도한, 지나친, 과장된, 왜곡된, 두드러진, 눈에 띄는, 특이한, 유별난 등으로 묘사하여 ‘미’가 아닌 ‘추’를 짐작하게 하게한다.

세계미술용어사전에서 밝힌 ‘추’를 보면 “고전적 미학은 추를 미의 부정적 의미로 밖에 다루지 않았다. 게오르그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이나 프리드리히 피셔(Friedrich Theodor Vischer)의 미학에서 추는 악(惡) 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을 가져오며, 따라서 이념의 순수한 현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배척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추의 미학’을 역설한 요한 로젠크란츠(Johann Karl Friedrich Rosenkranz)는 예술이 이념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것과 서로 뒤엎혀 있는 부정적인 것, 다시 말하면 추가 결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논하고 있다. 추는 부형태, 불균제, 부조화와 같은 ‘형식성’, 표현의 부정확성, 정신적 자유의 부정에 근거하는 왜곡이라고 구분하며, 다시 이 왜곡을 비속한 것, 혐오스러운 것, 희화로 구분하고 있다. 이로써 어떤 종류의 숭고는 그 몰형식성에 있어서 추의 요소를 포함하며, 비장은 종종 혐오스러운 것, 사악한 것에 대한 표현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골계(溝穢)는 비루하고 약소한 것에 대한 표현이나 희화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와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테오도르 립스(Theodor Lipps)의 미학에서도 추는 ‘소극적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미가 한층 돋보이게 하는 역할, 즉 미를 한층 인상깊게 두드러져 보이도록 하는 배경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미에는 직접적인 그 실현을 위한 조건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미가 그것에 대해서 항쟁하며 자기를 주장함으로써 그 힘을 과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추의 적극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고딕 후기 복식의 극단적인 현상이 기괴함이요, 부조화와 왜곡이 아니라, Koda(2001)의 견해

대로 추구된 미가 ‘익스트림 뷰티’이며, 여기에 Lipps의 주장을 수용하면, 극단적인 현상은 귀족적인 ‘우아미’와 기독교적 이상의 장엄하고 거룩한 초월적인 ‘숭고미’를 더욱 인상깊게 돋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그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서, 내재된 복식미를 즉 ‘추의 미’로 환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중엽에 와서야 추가 미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할 때, 고딕 후기 복식은 ‘기괴성과 부조화’가 아닌, ‘익스트림 뷰티’이며 ‘추의 미’로서 동시대인의 미 개념의 새롭고 혁신적인 통찰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고딕 후기 복식에 나타나는 극단적 현상 및 특성을 도출하고 논의하였는 바, 추구된 극단적인 현상은 복식을 통한 신체 변형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시대적 이상을 표현할 뿐 만 아니라, 국제 고딕 예술 양식의 정교하고 세속적인 과잉장식 취미가 반영되어 그 맥락을 같이하며, 아울러 추구된 ‘극단적인 미’는 ‘추의 미’로 환원될 수 있음을 밝혔다. 본고의 연구 결과를 통해 그동안 기괴함으로 치부되었던 고딕 후기 복식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그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가 복식과 인간 관계 구조 뿐만 아니라 복식을 통한 인간 행위 탐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애란. (2008). *서양복식의 문화와 역사*. 서울: 교문사.
- 국제고딕양식. *미술대사전*. 자료검색일 2018. 1. 10,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59155&cid=42635&categoryId=42635>
- 국제고딕양식. *세계미술용어사전*. 자료검색일 2018. 1. 10,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3903&cid=42642&categoryId=42642>
- 국제고딕양식. *위키피디아*. 자료검색일 2018. 1. 10,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국제고딕>
- 극단. *국어대사전*. 자료검색일 2018. 1. 10, 자료출처 <https://ko.dict.naver.com/detail.nhn?docid=5125600>
- 남윤숙. (2001). 중세복식에 나타난 성(性)의 이론적인 사고. *한국의류학회지*, 25(7), 1281-1292.
- 밀플뢰르. *위키피디아*. 자료검색일 2018. 2. 15, 자료

-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Millefleur>
- 박소연. (2016). 후기 고딕 초상화의 헤드드레스를 응용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패션디자인학회지*, 16(2), 19-32.
- 박숙현. (1999). 모던 고딕 시대와 포스트모던 르네상스 시대 복식의 유사성 비교. *한국생활과학학회지*, 8(1), 193-210.
- 박영신. (2007). *고딕 회화*. 서울: 재원.
- 백재은. (2003). 고딕양식이 복식문화에 미친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9(3), 47-60.
- 성광숙. (2003). *복식 확대현상의 미적가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김미영. (2014). *패션과 문화*. 서울: 교문사.
- 윤점순. (1988). *중세와 근세복식의 구조적 분석*. 상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홍. (1997). 중세유럽의 생활미술과 복식 문화에 관한 연구. *복식*, 35, 17-44.
- 이연희, 성광숙. (2016). 서양의 역사복식에 나타난 과장적 헤어스타일의 미적특성 연구. *복식*, 65(8), 110-124.
- 전여선. (2013). *예술적 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난 서양복식의 미적특성과 현대패션의 표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현숙. (1986). 십자단 전쟁이 중세복식에 미친 영향: 11세기~15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4(1), 17-26.
- 정명선, 배수정, 조훈정, 현선희, 김성은. (2011). *패션과 문화*.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 정은진. (2009). 15세기 태피스트리의 새로움: 장미, 유니콘, 밀플뢰르. *미술사학보*, 32, 5-27.
- 정홍숙. (1999). *서양복식문화사(개정판)*. 서울: 교문사.
- 조현진, 김영삼, 정홍숙. (2004). 11~15세기 중반 기사문화가 중세복식에 미친 영향. *복식*, 54(4), 27-40.
- 플랑부야양식. *두산백과*. 자료검색일 2018. 2. 15,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9748&cid=40942&categoryId=33077>
- 추. *세계미술용어사전*. 자료검색일 2018. 2. 20,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5109&cid=42642&categoryId=42642>
- 태피스트리. *위키피디아*. 자료검색일 2018. 2. 20,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D%83%9C%ED%94%BC%EC%8A%A4%ED%8A%B8%EB%A6%AC>
- Boehn, M. V. (2000). *패션의 역사(정인희 역)*. 서울: 한길아트. (원저 1996 출판).
- Black, J. A., & Garland, M. (1997). *패션의 역사 1 (이재원 역)*. 서울: 자작아카데미. (원저 1980 출판).
- Durande, J. (2006). *중세 미술 (조성애 역)*. 서울: 생각의 나무.
- Horne M., Gurrel L. (1995).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 외 역)*. 서울: 까치 (원저 1981 출판).
- Kaiser, B. Susn. (1990). *복식사회심리학 (김순심 외 역)*. 서울: 경춘사.
- Koda, H. (2001). *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 N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Legrand, G. (2006). *르네상스 (정숙현 역)*. 서울: 생각의 나무.
- Mirkin, T. F. (1996). *패션 속으로 (허준 역)*. 서울: 새로운 사람들.
- Payne, B. (1988). *복식의 역사 (이종남 역)*. 서울: 까치 (원저 1965 출판).
- Retz, R. M. (1996). *르네상스의 미술 (김창규 역)*. 서울: 예경.
- Shaver, C. A. (1996). *중세의 미술 (김수경 역)*. 서울: 예경.